

언론노조 KBS본부 2018년 제 4차 중앙위원회 및 7차 집행위원회 결의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노동자의 권익향상, 노동자 연대의 정신에 따라 언론노조 KBS본부 중앙위원과 집행부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결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의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에 있어 ‘정치권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에는 종사자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시청자,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실질임금 저하가 되지 않아야 하며, KBS본부의 합의 없는 어떠한 방식의 근로형태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조직개편과 관련 KBS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개편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KBS본부의 합의가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 2019년 KBS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 단결, 연대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KBS내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2018년 11월 29일(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일동**